



광주FC 박진섭 감독(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7일 영주체육관 내 축구센터에서 선수들과 공을 차며 몸을 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 3년을 기다렸다 K리그1 ... 광주 FC '탁공 축구' 기대해

**K리그 오늘 개막...전세계 생중계 전북현대-수원삼성 공식 개막전**

**광주 FC, 내일 홈에서 성남 상대 박진섭-김남일 동갑 감독 지략대결 역대 최강 외국인단 구성 전남, 10일 경남 상대 첫 승 사냥**

K리그가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2020시즌 대장정에 나선다. 2020 K리그가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

는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공식 개막전과 함께 '희망의 시즌'을 연다.

지난 2월 29일 개막을 준비했던 K리그는 코로나19로 결연을 멈췄다. 오랜 기다림과 준비 끝에 K리그는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 속에 가장 먼저 그라운드를 열게 됐다.

많은 의미가 담긴 2020시즌, 광주FC도 의미 있는 도전을 시작한다.

광주는 9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FC를 상대로 2020시즌 개막전을 갖는다.

지난해 1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펼친 광주는 'K리그2 우승팀'으로 당당히 K리그1 멤버가 됐다. 이번 개막전은 간절하게 기다렸던 광주의 K리그1 복귀전이기도 하다.

올해는 광주의 창단 10주년이기도 하다. 전용경기장 개장도 앞둔 만큼 광주에게 2020시즌은 특별

하다.

K리그2 우승을 지휘한 박진섭 감독은 순천, 태국으로 이어지는 전훈 기간 조직력 향상에 힘을 쏟았다. 지난해 우승 멤버들을 그대로 유지한 광주는 K리그2 최소 실점(36경기 31실점)을 기록한 수비라인 역시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더 빠르고 강한 K리그1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위해 선수단 보강도 했다.

K리그1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김창수, 김효기, 한희훈 등 베테랑 선수를 영입하면서 '패기의 스퀴드'에 '경험'을 더했다.

또 펠리페, 아슬마토프, 윌리안에 두 번의 월드컵을 경험한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마르코를 더하면서 역대 최강의 외국인 멤버를 구성했다.

또한 광주에 개막전은 기본 좋은 날들이었다. 광주는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2승 3무를 기록

하는 등 개막전에서 지지 않았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변수 속 개막이 늦어진 만큼 초반 분위기와 컨디션이 올 시즌 순위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다렸던 날을 맞게 된 박진섭 감독은 자신감을 건 '동갑내기' 대결을 벌인다.

적장으로 광주를 찾는 성남 김남일 감독은 박진섭 감독과 동갑내기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축이었다. 현역 시절 영리한 플레이로 사랑받은 박진섭 감독과 스타플레이어 출신 김남일 감독의 맞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박진섭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이 연기되면서 팀이나 선수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성실히 훈련을 진행했다. 원팀이라는 광주의 팀 컬러에 맞는 끈끈한 조직력으로 반드시 승리를 가져 오겠다"며 필승을 다짐했다.

K리그2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전남 드래곤즈는 10일 오후 6시30분 장원에서 경남FC를 상대로 승격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

2018시즌 1부리그에서 대결을 했던 두 팀이 2년 만에 2부리그에서 만나게 됐다. 지난 2018시즌이 끝난 뒤 전남이 강등의 아픔을 겪었고, 지난 겨울에는 경남이 2부리그로 추락했다.

승격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의 만남이다. 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전남이 12승 9패 6무로 앞서있다.

전남에 올 시즌 많은 변화가 있다. 전경준 감독이 대행 코리표를 떼어내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게 됐고, 김영욱과 한희희 등 팀을 대표했던 선수들이 떠났다. 대신 '광양 루니' 이종호가 5년 만에 복귀해 전남 승격을 위해 앞장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선수단이 7일 영주체육관 내 축구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FC 제공>

## 전북, 개막전만 7회 '단골 손님'

6승1무 최다승...인천·대구 '개막 무승'·임상협 '2분' 최단시간 득점

### K리그 개막 라운드 기록들

8일 K리그 그라운드까지 열린다. 새로운 시즌을 맞는 K리그1 개막라운드의 기록들을 알아본다.

'FA컵 우승팀' 수원삼성을 상대로 8일 가장 먼저 2020시즌 경기를 치르게 된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는 공식 개막전 단골 손님이다.

전북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시즌 동안 네 번의 공식 개막전을 치렀다. 올해 다시 리그 스타트를 끊게 되면서 다섯 번째 공식 개막전을 갖는다. 모두 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맞은 순간들이다.

전북의 뒤를 이어 서울이 2012, 2016시즌 리그 우승과 2015시즌 FA컵 우승으로 세 번의 공식 개막전을 치렀다. 포항과 울산이 각각 두 번으로 뒤를 잇는다.

전북은 개막전 강자이기도 하다.

전북은 2013년부터 개막라운드 6연승을 달렸다. 지난 시즌 대구와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연속 기록은 깨졌지만 7시즌 동안 6승 1무를 거둬, 개막전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K리그1 복귀전을 앞둔 광주도 개막전에서 강했다. K리그1 무대 개막전 성적은 1승 2무. 최근 5년간 개막전 전적도 2승 3무로 무패행진 중이다.

울산은 5승 2패로 전북 다음으로 개막라운드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챙겼다.

반대로 인천과 대구는 개막전 징크스가 있다. 시즌 첫날 인천은 4무 3패, 대구는 1무 3패로 부진했다. 올 시즌 K리그1에 참가하는 12개 팀 중 두 팀만 개막전 승리가 없다.

공교롭게도 두 팀은 이번 주말 개막전에서 맞붙는다. 어느 팀이 '개막라운드 무승' 징크스에서 탈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역대 K리그1 개막라운드에서 나온 골은 99골. 82명의 선수가 개막전에서 골을 신고했고 김신욱은 가장 많은 4골을 넣었다. 김신욱은 2013, 2014시즌에는 울산에서, 2016과 2017시즌에는 전북 유니폼을 입고 개막라운드에서 골맛을 봤다.

2017년 경남의 승격을 이끌었던 말걸은 K리그1 개막라운드에서 유일하게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로 남아있다.

개막라운드 '최단 시간' 득점 기록은 임상협이 가지고 있다. 2013시즌 당시 부산에서 뛰던 임상협은 강원과의 개막전에서 경기 시작 2분 만에 골망을 갈랐다.

최다 관중이 모인 개막전은 2017년 기록됐다. 서울과 수원의 시즌 첫 맞대결을 보기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 3만 4376명이 몰려들었다.

개막전 관중 2위 기록은 3만 2695명으로 2016시즌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서울의 경기에서 기록됐다.

## 분데스리가 15일 재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내고 오는 15일 리그를 재개한다.

로이터통신은 독일축구리그(DFL)가 분데스리가를 오는 15일 재개하기로 확정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이는 독일 정부가 이날 5월 중순 이후 무관중 경기를 조건으로 프로축구 재개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분데스리가는 지난 3월 13일 중단을 선언한 뒤 약 2달 만에 2019-2020시즌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유럽 5대 '빅리그' 중 가장 먼저 정상화하는 리그가 됐다.

프랑스 리그앙은 정부가 사실상 강제로 시즌을 종료시켰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는 시즌 재개일이 확정되지 않았고, 재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분데스리가는 전체 34라운드 중 25라운드까지 치른 상태. 현재 리그 8연패를 노리는 뮌헨이 승점 55점을 쌓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51점)와 라이프치히(50점)가 2, 3위에 자리해있다. /연합뉴스

## 프랑스리그, 이강인 '눈독'

프랑스·스페인 언론 "마르세유, 영입 고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의 이강인(19·사진)이 프랑스 리그앙(1부리그)의 올랭피크 마르세유, 니스, 보르도의 영입 대상에 올랐다는 프랑스와 스페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일간지 레퀴프는 7일 "마르세유가 발렌시아의 어린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을 이번 여름 이적 대상 리스트에 올려놨다"라며 "이강인을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으로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퀴프는 "이강인은 프랑스 시장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시즌 18경기에 출전한 어린 공격형 미드필더로 발렌시아와 2022년까지 계약돼 있다. 마르세유는 이강인이 로테이션의 일부로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적당한 클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니스도 이강인의 프로필에 주목하고 있다. 이강인의 몸값은 1500만유로(약 199억원)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스페인 매체 아스도 이강인의 프랑스 무대 진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스는 이강인을 노리는 팀으로 마르세유와 함께 황의조가 뛰는 보르도를 지목했다.

아스는 "마르세유와 보르도가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원하는 이강인의 영입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언스리그에 나서는 마르세유는 이강인의 임대 이후 완전 이적을 원하고 있다. 이강인도 발렌시아에 재계약 거부 포함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 팀을 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강인은 지난해부터 부족한 출전 시간 때문에 발렌시아 이적설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에도 이강인이 구단에 이적을 요청했다는 스페인 언론의 보도가 나왔지만 발렌시아는 '이적 불가'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부상 여파로 18경기(정규리그 11경기·UCL 5경기·국왕컵 2경기)에 나서 1골 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연합뉴스